“역대 가장 큰 선거본부 … 자치회비 감사기구도 투명성 높이겠다”

정후보 김병경(체육학 2009) / 좌
부후보 박수지(산업경영공학 2014) / 우

국제캠 총학생회 후보 KHU&KHU

이시은 기자 dltldms77@khu.ac.kr

Q. 선본명 KHU&KHU는 무슨 뜻인가?

A. 김병경 정후보(정) - 역대 국제캠퍼스(국제캠) 선거본부(선본) 중 가장 많은 수의 단체가(외국어대학, 전자정보대학, 응용과학대학, 공과대학, 체육대학, 총여학생회, 총학생회) 하나의 선본에 소속돼 있다. 이렇듯 각기 다른 단과대학들이 연합해 한 단체를 이뤘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슬로건은 ‘하나 되어 학우들에게 다가가는 경희와 경희’로, 선본명은 ‘KHU&KHU’로 정했다.

Q. 대표 공약사항은?

A. 정 - 우선 선본의 공통공약부터 말씀드리겠다. 자치회비 감사기구를 설립하고자 한다. 이는 가장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약속이다. 올해 문제가 많았던 자치회비에 있어서 총학생회(총학) 뿐만 아니라 모든 단과대학들이 자치회비 감사기구를 설립해서 학생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시설 대여 시스템의 체계화를 이루겠다. 현재 운동장처럼 대여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못 쓰고 있는 시설들이 많다.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외국어대학을 본보기로 삼아, 시설 대여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를 만들어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겠다. 그간 총학과 각 단과대학의 취업 프로그램, 행사정보 등은 페이스북으로 공지돼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SNS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해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공약들의 세부 내용이 궁금하다. 먼저 ‘형식적인 강의평가 개선’ 공약은 어떤 것인가?

A. 정 - 사실 처음 도입하려고 한 제도는 직접적인 교수 평가제도였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제도를 활용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온라인 강의 평가의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개선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영어강의 평가 문제 또한 강의평가 개선이 달성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대자보·거치대 확충은 대자보를 설치할 수 있는 교내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뜻인가?

A. 정 - 공간 마련의 의미는 아니다. 타 학교에 많이 존재하는 나무 소재의 이동 가능한 거치대를 설치해 캠퍼스 지도를 걸어놓거나 기타 홍보에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덧붙여 각 단과대학의 게시판을 생명과학대학의 게시판처럼 바꿀 생각이다. 생명과학대학의 게시판은 종이를 끼우는 형태로 돼있어 따로 스테이플러가 필요 없다. 이를 본보기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홍보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Q. ‘학우 소통의날’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A. 정 - 이전 POWER라인 선본에게서 영감을 얻어 생각하게 됐다.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매주 수요일 점심에,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학생들을 만날 계획이다. 익명이여도 좋다. 회장과 부회장이 번갈아가면서 학생들을 만나 ‘직접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Q. 화제가 되고 있는 ‘본·분교’ 관련 공약도 있다.

A. 정 - 본·분교 문제에 대해선 매년 국제캠 학생회가 공약으로 들고 나왔었다. 하지만 그간 뚜렷하게 실천했다고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구성원들 인식’에 따라 이행 여부가 나뉠 수 있는 공약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번에 우리는 구체적인 항목(회의체계 국제캠 이전, 입시정보 통합 표기, 일부학과 다전공·전과 불가 문제해결)을 세워 문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캠 대표자들과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TF팀을 만들어 서울캠과 함께하는 공동 회의체계를 꾸려 해결하겠다.

Q. 마지막으로 선거에 나서는 포부를 말해 달라.

A. 정 - 오랫동안 선거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그간 소속된 단과대학(체육대학)의 이미지 때문에 최근까지도 안타까운 일을 많이 겪었다. 당선된다면 그간 제가 준비해왔던 여러가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고, 체육대학에 대한 인식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후보자로서, ‘사람 김병경’으로서 학생들에게 정당하게 평가받고 싶고, 진심으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

A. 부 - 그간 어떤 직위를 갖고 학생회 일을 해본 적은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회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후보자 선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모든 것을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만약 당선이 된다면 같은 자세로 학생들에게서도 모든 것을 듣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투표권 남학생에 개방하고 ‘총여’ 조직명도 바꿀 것”

국제캠 총여학생회 후보 ‘KHU&KHU’

강경진 기자 cocoandlisa@khu.ac.kr

Q. 입후보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이유진 정후보(정) - 47대 총학생회(총학)에서 집행부원으로 일하며 총여학생회(총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총여가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해 학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 현 총여 측에서 입후보 제의가 들어와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Q. 선본명 ‘KHU&KHU’는 무슨 뜻인가.

A. 정 - ‘KHU&KHU’는 하나가 되어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경희와 경희라는 뜻이다. 모든 단과대학이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지은 이름이다.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총여와 단과대학이 하나되어 학생들에게 다가가겠다.

Q. 공약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A. 정 - 총여 투표권을 남학생에게 개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총여 후보 선거권과 추천권한은 여학생에게만 주어졌다. 그러나 총여는 더 이상 여학생들만을 위한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예산운영 역시 전체 구성원의 자치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학생 모두를 위한 단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고 싶다.

Q. 투표권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 달라.

A. 정 - 각 단과대학, 총학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총투표에 총여 투표권 개방 안건을 상정할 것이다. 물론 학생총회를 열고 학교와의 내부적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예산과 세칙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해 총여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지만 선거본부위원회 내부에서 많은 협의 후 내린 결정이다.

Q. 학생회 이름을 변경하겠다는 공약은 어떤 의미인가.

A. 정 - 학생 모두를 위한 총여를 만들고자 총여 투표권을 남학생에게 개방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학생총투표 안건 상정을 통해 아예 총여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Q. 총여 세미나실 카페화는 어떤 의미가 있나.

A. 정 - 총여 세미나실은 모든 학생에게 개방돼있음에도 이용률이 낮다. 총여 세미나실을 카페화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임을 전하고 싶다. 이를 통해 총여는 모두를 위한 학생회라는 것을 알리고 학생들이 총여를 좀 더 친근하게 여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Q. 현 총여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A. 김지향 부후보 - 47대 총여 집행부로 일하며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구성애 선생님의 성교육이나 대동제 때 설치한 부스 등 상대적으로 홍보가 잘 이뤄져 성공한 사업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점이 안타깝다.

Q. 현 총여와 달라지는 점이 있는가.

A. 정 - 기본적으로 ‘같을 여(如)’를 추구하는 것 즉, 모든 학생을 위한 총여를 만들고자하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투표권 개방과 학생회 이름 변경을 통해 변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싶다. 또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학생참여를 높이고 학생과 소통하는 총여가 될 것이다. 각 단과대학 여학생운영위원장과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단과대학별 불편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겠다.

Q.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A. 정 - 큰 변화를 이루고자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날카로운 질타도 총여, 나아가 학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히 수용하겠다. 즐겁게, 밝게, 발로 뛰는 총여가 되겠다.

정후보 이유진(국제학 2015) / 좌
부후보 김지향(국제학 2015) / 우

2015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및 실적등록 안내

2015학년도 2학기 자유선택과목 “사회봉사 1,2,3”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 가능 학점
가. 성적부여 방식: P / F (2014학년도 부터 P/F 모두 성적표에 기재)
나. 최대 취득가능학점: 학기당 1학점, 총 2학점 (단, 2007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최대 3학점)

● 사회봉사 학점취득 변경내용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항목	2012-2학기 이전	2013-1학기부터
취득요건	– 온라인캠퍼스 이수 후 봉사활동 32시간으로 학점 인정	**– 재,휴학에 관계없이 입학 이후 실시한 봉사활동 32시간으로 학점 인정**
인정기준	국공립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 불가능 ① 교외봉사 :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서울동행프로젝트(http://donghaeng.seoul.kr),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www.vms.or.kr)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② 교내봉사 : 교내부서 및 단과대학에서 주관하는 봉사 (단, 취업진로지원처와 사전협의 되어야 함) 를 실시한 경우 ③ 헌혈 : 입학 후 실시한 본인의 헌혈증서 원본을 기증한 경우 (헌혈증서 원본 이외 다른 서류 제출 불가)

문의 : 취업진로지원처 (031-201-3061)

● 사회봉사 학점인정신청 및 실적등록신청

구분	교과목 이수 (학점인정신청)	실적등록
대상	2015-2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학생	전체 재학생 및 휴학생
서류 제출기간	**2015년 11월 2일(월) ~ 2015년 11월 27일(금) 17:00까지** 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일체 서류를 받지 않음	
제출서류	1. 학점인정신청서	1. 실적등록 신청서
	2. 봉사활동확인서 원본 및 사본	
	3. 소감문	–

– 제출서류양식은 http://service.khu.ac.kr/ 접속 후 정보마당-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회봉사 관련 기타 상세사항은 공식홈페이지 http://www.khu.ac.kr – [공지사항] – [일반] 에서 확인

● 기타 세부사항
가. 봉사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한다.
(같은 날 실시한 헌혈+봉사활동 실적 제출할 경우도 적용)
나. 헌혈증서 기증을 통한 봉사시간 인정은 입학 이후 실시한 헌혈에 한하여, 교과목 이수에 요구되는 32시간 중 총 16시간까지 인정 가능하며 연도별 인정시간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2006. 2.28 이전	2006. 3. 1~2011. 2.28	2011. 3. 1 이후
헌혈증 1장 당 인정시간	15	8	4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안내

● **신청대상 :** 2004~2007학번 재학생 중, 금학기 현재 면제 받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 않으며 이수하지 않은 자
● **이수면제 대상과목(학점부여 없음)**
가. “대학영어” 나. “사고와 표현”, “보고서작성과 발표”, “생명과학논문작성법”
다. 전산영역의 경우 이수요건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 **면제기준 및 자격**
가. 대학영어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공인영어시험능력자로 계열별 TOEFL, TOEIC, TEPS 일정점수 이상자
2) 국제화 추진 TOEFL, TOEIC, TEPS 전형 입학자
3) 영어권 국적 외국인 특례입학자
4) Intensive Program(DEEP, LEAP, REACH)이수자
5) 국제교류처주관 영어권 학점교류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

[이수면제 기준표]

면제종류	계열	대학	면제기준 TOEFL CBT	TOEFL IBT	TEPS	TOEIC	G-TELP	면제내용
공인영어시험능력자	외국어계열 사회계열	외국어대학 국제·경영대학	207 이상	76 이상	600 이상	700 이상	66 (Level2) 이상	과목면제 ※ 실시일 기준 현재 최근 2년 이내 점수에 한함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전자정보대학 응용과학대학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우주과학과)	193 이상	69 이상	551 이상	650 이상	57 (Level2) 이상	
		공과대학 생명과학대학 응용과학대학(응용화학과)	190 이상	68 이상	530 이상	640 이상	56 (Level2) 이상	
	예체능 계열	체육대학 예술·디자인대학	**147 이상**	**51 이상**	**400 이상**	**510 이상**	**57 (Level3) 이상**	

* 외부 공인기관 자격증 제출은 매 학기 지정하여 신청 기간에 신청서와 성적표(원본)를 제출한다.

면제종류	자격	면제내용
국제화추진 전형입학자	국제화추진 TOEFL TOBC 전형 입학자	과목면제
특례입학자 (영어권)	영어권 국적 외국인 또는 영어권 교포자녀, 영어권 재외국인	과목면제
Intensive Program 이수자	국제교류센터가 인정하는 – 재학 중 영어권 학점 교류자/어학 연수자로 선발된 자, 외국 영어기관의 과정을 수료하고 상급성적을 취득한 자에 한함. – 영어권 국가에서 학점 인정 가능한 영어 어학연수/과정(외국대학, 대학 부설 및 공인 교육기관 Program)에서 48시간(3시간X16주) 이상 이수한 후 고급 성적을 취득한 자	과목면제
Intensive Program 이수자	평생교육원 DEEP, 국제교육원 LEAP, REACH 집중 프로그램 과정을 출석율 80% 이상, 성적상급수준으로 수료한 자.	과목면제

*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Intensive Program 이수자들은 증빙서류 제출한 자에 한하여 상황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며, 통과자에 한하여 과목을 면제한다.(신청 기간에 제출)
* 공학인증(ABEEK)대상자는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영어 학점 인정 불가

나. 외국어대학 대학영어 / 전문영어 이수 면제기준
※ 외국어대학 핵심교양 이수면제 예외사항
– 외국어대학은 학과적 특성에 의해 특정과목 수강으로 ‘대학영어’와 ‘전문영어’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음
– 자신의 제1전공이 아닌 타 전공의 외국어1, 2단계를 이수하는 것으로 핵심교양 이수를 대체할 수 있음

[대체교과목]

제 1 단계	제 2 단계	총 이수학점
초급중국어회화1	초급중국어회화2	6
일본어강독1	일본어강독2	6
스페인어1	스페인어2	6
러시아어1	러시아어2	6
초급프랑스어1	초급프랑스어2	6

※ 상기과목으로 이수면제를 신청하는 외국어대학 소속 학생은 외국어대학행정실(T:031)201-2201)에 별도 접수 바랍니다.

다. 사고와 표현 영역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1) 1단계: 독후감 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후 구술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2단계: 글쓰기 시험 80점 이상

[이수면제 기준표] * 신청서 제출은 매 학기 지정하여 신청 기간에 제출한다.

단계	내용	평가 방법	학점	비고
1단계	독후감 평가 (권장도서 중 3편을 읽고 독후감 제출)	독후감 80점 이상 통과자에 한하여 구술시험	P / F로 부여	1단계 합격시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2단계	글쓰기 시험 (교재 내용 이해도 평가 / 논술 시험)	80점 이상 통과		

라. 전산영역 이수면제 기준 및 자격 : 전산영역의 경우 이수요건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 **신청기간 :** 2015.12.01(화) ~ 2015.12.11(금) 17:00 까지
● **신청장소 :**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멀티미디어교육관 507호)
● **신청자 유의사항**
가. 2015-2학기 현재 상기과목을 수강 및 이수한자는 신청할 수 없음.
나. 본 제도는 일정능력보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학점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다. 신청자격이 있어도 본 이수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목이수를 면제받을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031-201-3401~5)
●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나. 증빙서류 원본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